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동호

시인·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 한국의 대학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공론화시킨 다음 그들의 생색내기 용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은 특별한 정부 지원을 대안으로 구상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면피용 대책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지 않다.

젊은 유권자를 유혹하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대학 현실에서 반값 등록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수업 시간을 단축한다는가, 강의 단위를 대형으로 조정한다는가, 아니면 진입 교원에게 수업시수를 더 많이 요구한다는가 하는 일이 여러 대학에서 온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한 편에선 한국의 대학 경쟁력을 논하는 상반된 요구가 있다. 국내 순위가 정해지고, 아시아 순위가 발표되고, 세계 순위가 대체적으로 보도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아주 부진하다고 질타한다. 또는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중국의 약진에 비해 너무 지지 부진하고도 한다.

한국의 대학이 새로운 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성과물을 산출하게 만드는 확실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미래창조의 현장이 대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이 미래 창조의 생산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정부의 발표가 현실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을 그대로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의 유수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만났다. 그분은 “대학 평가를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평가는 현장에서 아무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이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연봉과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들여 신입사원들을 훈련시키고 나면 30~40년 사이에 상당수가 회사를 퇴직하고 만다는 것이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생산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 겨우 유능한 인재로 훈련시켜 놓으면 직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얘기다.

좀 더 편하고 쉬운 직종을 찾아 가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한국은 앞으로는 아주 문제라는 그분의 드랙온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는 겉으로 화려한 스페셜을 쌓느라 방황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생산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인간

교육이 더 절실히라는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지표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그분의 발언에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대학은 당장 현장에 필요한 교육만을 하는 곳은 아니다. 대학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당장의 필요는 당장의 쓸모일 뿐이다.

대학교육의 본질은 다양한 인문교육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다. 기술교육이나 현장교육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대학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 현장에서 견디지 못하는 인재라면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교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심 동력은 약화되고 말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현장교육도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인문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주락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생 유권자를 유혹하는 정치권력이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졸업생을 양산하고 있는 대학 당국 모두 일개 개혁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 社說

## 전횡 일삼는 조선대 이사진 모두 물리나라

조선대 이사들의 전횡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새 이사진 구성은 촉구하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직 연임만을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사들은 수차례나 이사회를 열고도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을 내놓으면서 연임을 위한 속셈을 드러냈다. 또한 이날 차기 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상정시켜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대학 구성원은 비롯한 지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부는 협약을 주도한 만큼 이들의 일탈행위를 중지시키고, 새 이사진 구성은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학교 층과 지역민의 여론이 전제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도 이사회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관 변경 무효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식 이하의 이사회는 폐해만 끼칠 뿐이다.

개다가 이사회는 개방이사 3명을 선임

하라는 학내의 요구가 거세질 땐 대학자 치기구에 추천을 요구하다 정작 개방이사가 추천됐을 때는 투표로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까지 연출했다. 이 3명도 한꺼번에 선임하기 어렵다면 일단 1명만 선임키로 해놓고, 이미지 뺏지 않았다.

꼼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개방이사 선임권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교육부에 의뢰해도 반려될 것이 맹한 사안이었지만, 구성원들에게 마치 최선을 다하는 양 보이기 위해 교육부에 의뢰하기까지 했다. 대학 구성원은 비롯한 지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부는 협약을 주도한 만큼 이들의 일탈행위를 중지시키고, 새 이사진 구성은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학교 층과 지역민의 여론이 전제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도 이사회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관 변경 무효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식 이하의 이사회는 폐해만 끼칠 뿐이다.

## 주택가 파고드는 성매매 두고만 볼 건가

광주·전남에서 성매매업소 영업이 보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찰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과 일반주택 등으로 독거녀처럼 파고드는가 하면, 키스방·대딸방 등 범례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과 같은 범죄는 사회와 가족, 특히 자식들에게 얼굴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음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범금과 느슨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이 무감각해진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 등 2명은 지난 2일 새벽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종업원 4명을 고용,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7만~13만 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김씨 등은 업소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동종 업주들을 통해 믿을 만한 손님인지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 등 2명은 지난 2일 새벽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종업원 4명을 고용,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7만~13만 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김씨 등은 업소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동종 업주들을 통해 믿을 만한 손님인지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집창촌 쇠탁 이후 은밀해진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단속돼도 솔방망이 처벌에 영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엄한 처벌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사회의 필요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無等鼓

한국 축구가 위기에 빠질 때면 어김없이 ‘박지성 대표팀 복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다. 대한축구협회도 박지성의 대표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축구협회는 A매치 70개 이상 원 선수에게 대표팀 은퇴식을 마련해 주지만 아직 박지성 은퇴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지는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04년 대표팀에서 은퇴했을 때 대표팀에서 은퇴했다가 2006 독일월드컵에서 복귀한 적이 있다. 파벨 네드베드도 은퇴 번복 후 월드컵 본선행을 이끌었다.

팬들은 흥명보 감독의 ‘형님 대리신’과 박지성의 복귀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펼치는 멋진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 물론 박지성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만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를 위해 지단이나 피구처럼 국가의 부름에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는 캡틴의 모습을 그려본다. 월드컵을 치르기 전 ‘흥명보호(號)’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그동안 차기 사령탑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종 예선과 함께 흥 감독이 유력해진 것이다. 청소년 대표팀과 런던올림픽 대표팀을 이끌어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과 무한한 능력을 그라운드에 펼치게 했던 흥 감독은 그동안 어수선했던 대표팀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축구팬들과 협정부 축구협회 부회장 등 축구 팬 사이에서는 ‘캡틴 박지성’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최종 예선에서 부진한 경기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박지성이 빙자되거나 너무나 커보였기 때문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의료칼럼

## 흉터없는 척추수술

학적으로는 ‘요추 주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자세 등으로 젊은 층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로 진단돼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는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허리 디스크 환자 중 약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시행하는 수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디스크 치료법은 상처가 거의 없으며 국소마취를 하며, 수술하는 혁신 미세 침습 치료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법은 국소마취 후에 직경이 5~7mm인 내시경을 척추 신경 구멍을 통해 삽입한 후 수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흉터 없이 척추 수술을 해주는 척추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허리 디스크는 요추(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나와 척추 신경을 눌러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를 의

미취가 필요 없고, 흉터가 적어 출혈이 거의 없는 점도 장점이다. 수술 후 신경 유착 등의 합병증이 없다는 점도 선호의 이유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후 첫 1주 일 동안은 주의를 요한다. 수술 후 3일간은 가능한 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 잘 때나 누워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간편한 보조기로 겨우 유능한 인재로 훈련시켜 놓으면 직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얘기다.

좀 더 편하고 쉬운 직종을 찾아 가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한국은 앞으로는 아주 문제라는 그분의 드랙온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는 겉으로 화려한 스페셜을 쌓느라 방황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생산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인간

이처럼 장점이 매우 많은 수술법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좋은 미세침습 척추 수술법이다. 이 수술법은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수술법이기에 성공률을 높이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척추 전문병원에서 전문가에게 수술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수술을 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상 습관을 바꾸면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 없이도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척추건강은 평소에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척추수술에 대한 최근의 변화된 흐름과 새로운 접근법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가 더욱 세밀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개념과 좋은 치료법이 개발돼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고

## 지역 중기제품,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춰야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기준의 오프라인시장에만 안주하고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그 생산물의 판매, 유통, 마케팅 등의 주 활동은 기존 유형의 공간적인 시장의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여건은 상품을 팔기 위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글로벌한 시대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첨단 통신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불과 몇 분 만에 수개월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급격하게 행정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인 인터넷 오픈마켓과 흥소평 입점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인터넷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JNopen.com)은 작년까지 317개사 700여 개의 품목을 입점시켜 2010년에 입점했던 기업들의 매출이 당시 26백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 467백만 원으로

신장되었고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은 1585백만 원에 이르는 꼭두 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에 중소기업전용 흥소평과 연계 자체로서는 처음으로 TV 흥소평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평균 105%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방송 후에도 기업 인지도 상승과 함께 기업별로 3~50%까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장의 판로개척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자체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새로운 길은 단아 지역민에게 과급하고 보통 1시간 이내 거리는 운전도 가능하다. 수술 후 3주째부터는 조금씩 허리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간단한 사무나 부엌일, 공부하기, 생활 등을 가능하다. 수술 후 6주째부터는 운동의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켜야 된다. 중노동을 제외하고는 아프기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순조로운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많은 기업이 흥소평 입점을 희망하였으나, 대부분 업체가 품질 및 위생실사, 방송심의 규

정과 흥소평의 특수한 판매환경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과 10% 정도가 1차 기준을 통과했다. 이러한 엄격한 선정기준을 놓고 보면 과거 흥소평이 제품과 서비스의 하자로 소비자에게 불신을 주었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는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인들이 새로운 판매방법을 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진입을 희망하는 것에 비해 아직 그에 따른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도 TV 흥소평 판매방송, 인터넷 오픈마켓, 신문광고 사업 등에 400여 품목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62개사가 입점하여 매년 1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서울 창동소재)의 품목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판촉활동과 구매자와 지역중소기업의 직접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500여 회의 상담을 성사시키고 있는 공공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 역할이 기존의 판매망은 견고히 다지고, 과급하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판로를 찾고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 역시 개인적인 영리 행위니 뛰어 하긴 어렵지만, 이런 행위들이 자칫 사업성민을 노린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생길까 우려된다. 이들의 짐이 미를 정도의 흥보상은 그들이 자체나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따라붙는 네트워크가 많다는 걸 무기로 상업적 광고를하거나 흥보상 기사 흑자를 주고 돈을 받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칭찬 글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들이 “알바가 너무 많네요”라는 식으로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표현의 자유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완벽하게 보장된 미국에서도 돈을 받고 인터넷에 올린 상품평을 법으로 규제한다. 이는 미국만의 일로 치부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와 기업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와 네트워크를 모두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아울러 이렇게 자꾸 속이고 속는다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효용성을 잃게 하고 인터넷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최혜경·광주시 동구 산수동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